

## 2023 년 5 월 28 일 “여호수아(5) 여리고 성 승리의 의미”(수 6:1-11)

할례의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원정 길을 나섭니다. 여리고 승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칼을 든 사람(5:13-15)

여리고로 가던 여호수아는 칼을 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등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식이었습니다(하나님의 extension).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 유업 쟁취의 전쟁은 하나님 방식과 의도대로 치르는 ‘여호와와의 전쟁’임이 확인됩니다.

### [2] 여리고 성 함락

여리고성(9 에이커 정도)을 정복하는 방법은 6 일간 1 회/하루, 7 일째는 7 회 성을 돕니다.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궤 앞에서 걷습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적의 성벽 주변을 도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따릅니다.

특이한 명령은 말하지 말라(10 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광야 1 세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안과 결핍의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셨습니다(민 11:18; 12:2; 14:27-28 등).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성을 둘 때가 광야보다 더 위급하고 두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길갈에서 내면의 수치가 해결되고 영적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 [3] 영적 전쟁과 헤렘 사상

여리고 전쟁은 주님의 뜻에 따른 여호와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라합과 가족들은 살려줍니다(17 절).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과 소유는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주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헤렘’(히)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단면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나안 민족들의 상태가 지속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피조계를 다스리고, 에덴을 가꾸고 지키라는 말씀을 떠나 멀리 인간의 본분을 멀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상황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여 여호와와의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십니다. 전멸해야 하는 이유는 죄악의 현실을 갈아엎고 원점으로 돌려 창조의 새역사(새창조)를 펼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집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첫 단계 성취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성벽 돌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엡 6:12).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안식의 유업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초점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으로 지어졌고 모든 피조물은 평강의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개인적 삶뿐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사랑과 평안을 주님께 배우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삶을 다스려서 평강을 성취하게 하시는 은혜를 맞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새창조의 역사가 성도님들 안에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여리고 성을 돌았던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신뢰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나는 어떤 측면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쌓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2. (헤렘 사상) 모든 것을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피조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까?